

急性 호흡기 疾患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알아야 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急性 호흡기 疾患

호흡기 질환은 초기에는 대개 virus 성의 양성에 상기도염에서 시작되어 차차 2차적인 세균(Bacteria)의 감염을 받아 중한 기관지 폐염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병들은 대개 1—5세의 소아에서 제일 많이 이환되고 성인에서도 기관지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등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전신쇠약이 된 사람에게 자주 걸리며 특히 이런 사람에게 걸릴 때에는 그 증상이 훨씬 심하다. 그러면 이때 볼수 있는 병들을 각 질환별로 보기로 하겠다.

1. 보통 감기

이것은 여러 종류의 virus들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鼻腔, 咽喉 及 副鼻腔등의 염증을 말한다.

과거에는 寒冷에 접촉 하는것 또는 오한이 드는것을 이병에 직접 원인이라 생각했으나 이들은 성행요

인이 될 뿐 감염의 직접 원인은 여러 종류의 virus에 의한 공기 감염이다.

그 증상은 전신증상으로 미열, 편태감, 두통, 식욕부진이 있고 소아에서는 구토, 설사 까지 있을 수 있다.

국소증상으로는 기침, 재치기, 콧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水樣(물같은 콧물), 점액성, 후에는 濃樣으로 변한다.

또 코가 백히거나 목이 아프고 마른다. 이와같은 증상으로 환자 자신이 먼저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병은 여러가지가 있어 감별 진단함이 중요하다. 즉 소아마비, 뇌막염, 디프테리아등의 초기증, 홍역, 水痘 등 발진성 질환에서 발진이 나타나기전 증상, 장질부사의 초기증상, 전염성 간염의 황달이 생기기전 증상들이 감기증상과 유사할 때가 많으니 이러한 증상이 여러날 계속될때는 단순히 감기라고만 생각하여 증

병으로 되기전 적절할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감기가 오래 계속되면 잘 낫지 않으며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킨다.

즉 축농증, 중이염, 후두염, 기관지염, 폐염, 경부임파선염, 편도선염 등이다.

▲치 료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또 대개의 경우는 별 치료없이 잘 낫는다.

따라서 감기자체의 치료보다 합병증의 조속한 치료 및 방지가 더 중요하다.

1) 일반적인 치료법으로선 환자는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고 수분과 영양섭취가 필요하다.

2) 대증적 요법으로는 두통이 있을때, 열이 있을때, 근육통이 있을때, 이들 경감시키기 위하여 Aspirin, 劑 같은것이 필요하다.

3) 코가 백히고 호흡곤란이 있을때는 Ephedrine 등의 국소투여 또는 경구투여를 한다.

4) Benadryl 이나 pyribenzamine 등 항히스타민제를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으나 현재에는 소위 콧물 감기등에는 별반 사용치 않는다.

5) 기침이 심할때는 codein 등 기침약을 사용한다.

위와 같은 약을 사용할때라도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하는것이 현명할줄 안다. 감기는 앞에 말한대로 virus 성이므로 그 자체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1) 이차적인 세균감염의 의심이 있거나,

2) 합병증이 생겼거나,

3) 과거에 자주 합병증을 일으켰던 사람에게는 합병증의 예방및 치료 목적으로 적당한 항생물질을 테라마이신, 크로르마이신 등을 쓴다.

▲예 방

감기를 방지할 vaccine 은 아직 없으며 한번 앓은 뒤에도 면역체는 불과 수일간 뿐이므로 일반인은 일년에 약 3회 걸린다 한다. 각 개인의 저항력을 증강 시키는 외에 특별한 예방법은 아직 없다.

2. Influenza

이것은 A,B,C 3 종류의 influenza virus 에 의해 생기며 유행시기마다 그 균의 type 이 다른때가 많으며 그 type 에 따라 전염력이 상당히 강하여 전세계에 파급하는 예도 있다.

▲증 상

보통감기와 유사하며 그유행시기가 아닌때는 임상 증상만으로는 감별하기 곤란하며 세균학적 방법만으로도만 감별된다. 그 병 경과는 감기가 약 1週日~2週日이라면 그보다 더 짧은 보통 3日~5日이며 그 증상이 감기 보다 더 급성인것이 보통이다.

이때 생기는 합병증은 감기와 유사하나 희유하게 심낭염(pericarditis), 심근염(myocarditis) 등을 일

으릴 수 있다.

▲치 료

치료법은 감기와 유사하다.

▲예 방

구미에서는 polyvalent influenza virus vaccine 이 실험 단계를 넘어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확실치 않다.

3. 급성기판지염

大部分이 virus 性이며 세균이 원인인 것보다도 있다. 보통 상기도염의 증상으로 시작하여 다른 기침이든 것이 점차 점액성, 농양성 객담이 나올때는 의심을 해야된다.

치료는 감기 때와 유사하며 농양성 객담이 나오거나 고열이 계속되면 적당한 항생물질을 써야한다.

▲肺 炎

흔히 폐염구균이 원인이며 그의 연쇄상구균, Friedlander 균, 포도상 구균, 뇌막염균등 세균에 依해서 생기는것이 대부분이며 virus 에 의해 생기는 폐염도 드물게 본다.

▲증 상

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고열, 오한, 전신쇠약, 심한두통, 근육통 등이 있으며 소아에서는 경기, 구토, 설사까지 있을 수 있으며 기침, 늑갈은 객담 또는 농양의 객담, 바늘로 찌르는듯한 흉통, 호흡곤란 등이 올 수 있다.

균의 내성검사를 하여 적합한 항

생제를 사용함이 제일 중요하다.

그 외에 충분한 수분 및 영양공급과 대증요법이 필요하다.

▲치료 및 예방

1) 피로를 피하고 전신 저항력을 증가 시켜야 한다.

2) 초기에 잘 치료해야 한다.

3) 오진, 특과 하면 해독은 크다.

앞에서 말한대로 감기, 인후르엔자 등의 증상이 여러병의 초기증상과 유사한점이 많아 오진하기 쉽고 이 오진으로 그대로 특과 했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잃으면 위험하게 된다.

4) 약물과용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전신에 역효과를 일으킨다.

즉 항생제 과용으로 :

저항균의 배출, 약의 직접 독작용, 파민성, 균교대작용, 저항균의 배출, 진단의 곤란등을 일으킨다.

고혈압 환자에게 Ephedrine 을 투여하여 혈압을 더 상승시켜 불행하게 될수도 있고, 위장이나 신장장애가 심한자에게 Aspirin 을 너무 복용하여 더 큰 병을 초래 할수도 있다.

5) 전문의사와 상의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조기 치료, 적합한 약물선택등을 위해 전문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